정보

개요

항목	내용
작곡가	Richard Strauss (1864–1949)
작품	*Also sprach Zarathustra*, Op. 30, TrV 176
장르	대관현악을 위한 단악장 교향시
작곡	1895년의 구상을 거쳐 1896년 2월 4일 ~8월 24일에 완성
초연	1896년 11월 27일 , Frankfurt am Main. Richard Strauss 지휘 , Frankfurter Städtisches Orchester
초판	1896년 , München, Jos. Aibl Verlag
통상 소요 시간	약 34분

IMSLP 악보·서지

Wikipedia

Richard Strauss의 *Also sprach Zarathustra*, Op. 30은 Friedrich Nietzsche의 동명 저작에서 출발한 교향시다 . 1896년 초판의 표제에는 이미 *Tondichtung (frei nach Friedrich Nietzsche) für grosses Orchester*라고 적혀 있다 . 여기서 *frei nach*는 원전을 장면마다 옮긴다는 뜻이 아니라 , 문학에서 취한 재료를 음악적으로 자유롭게 다룬다는 뜻에 가깝다 . 작품은 쉼 없이 이어지는 하나의 큰 악장 안에 무제 도입부와 여덟 개의 표제 구간을 배치한다 . 널리 알려진 시작부는 흔히 ‘Sunrise’라고 불리지만 , 그것은 통용되는 호칭일 뿐 악보에 붙은 정식 표제는 아니다 .

도입부의 낮은 C에서 시작해 상승하는 C–G–C 음형은 곧 거대한 관현악의 공간을 연다 . 이어지는 음악은 신앙의 선율 인용 , 엄격한 푸가 , 독주 바이올린이 이끄는 왈츠 , 자정의 종소리를 거치며 서로 다른 음향 세계를 밀도 있게 연결한다 . 그래서 이 작품의 드라마는 Nietzsche의 사상을 한 줄로 요약하는 데 있지 않다 . 오히려 서로 다른 표제와 음색 , 조성의 긴장이 한 흐름 안에서 서로를 밀고 당기는 데서 생겨난다 .

출판 정보와 자료

1896년 München의 Jos. Aibl Verlag에서 나온 전악보 초판은 Frankfurt 대학교 도서관이 디지털화해 공개하고 있다 . 표제지에는 작곡가 이름 , Op. 30, 대관현악용 교향시라는 성격 , 그리고 Nietzsche를 자유롭게 따른다는 부제가 함께 남아 있다 . 이 자료는 작품의 명칭과 초기 출판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현행 출판 정보 페이지는 C.F. Peters가 세계 권리를 담당한다고 밝히고, 초연 날짜와 기본 편성을 함께 적는다. 한편 Richard-Strauss-Werke의 비평판 목록에서 이 작품은 Stefan Schenk가 맡을 예정인 III/8권으로 올라 있지만, 아직 *In Vorbereitung* 상태다. 따라서 초판과 현대 대여용 악보, 앞으로 나올 비평판을 같은 성격의 자료로 묶을 수는 없다.

소요 시간

현행 출판사와 여러 관현악단의 작품 정보는 전곡에 약 34분이 든다고 제시한다. 다만 이 곡은 독립된 악장으로 끊어지는 형식이 아니므로, 아홉 구간에 고정된 분량을 배정하는 방식은 작품의 실제 진행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도입부의 압축된 제시부터 마지막 종결까지는 한 호흡으로 이어진다.

편성

구분	악기
목관	피콜로, 플루트 3대 (제 3플루트는 피콜로 겸함), 오보에 3대, 잉글리시 호른, E♭ 클라리넷, 클라리넷 2대, 베이스 클라리넷, 바순 3대, 콘트라바순
금관	호른 6대, 트럼펫 4대, 트롬본 3대, 튜바 2대
타악기	팀파니와 타악기 4명. 큰북, 심벌즈, 트라이앵글, 글로켄슈필, 낮은 E음의 종
그 밖의 악기	오르간, 하프 2대
현악기	현 5부

이 편성은 단순히 음량을 키우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 여섯 호른과 네 트럼펫은 도입부의 상승 음형을 거대한 거리감으로 넓히고, 오르간은 종교적 인용에 독특한 무게를 더한다. 글로켄슈필과 낮은 E음의 종은 전혀 다른 기능을 한다. 전자는 타악기군 안에서 반짝이는 금속성 음색을 보태고, 후자는 마지막 구간의 시간 감각을 실제 음높이와 공명으로 구체화한다.

Nietzsche와의 거리

Strauss는 첫 Berlin 공연 뒤 Otto Florscheim에게 보낸 말에서, Nietzsche의 철학을 그대로 음악화하거나 Nietzsche 자신의 초상을 그리려 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Boston Symphony Orchestra와 Indianapolis Symphony Orchestra의 프로그램 노트가 전하는 이 발언의 요지는 인간이 종교적·과학적 단계를 거쳐 더 높은 가능성을 향하는 생각에 관심을 두었다는 것이다. 이 설명에 따르면 문학은 음악에 종속된 줄거리가 아니다.

악보는 Nietzsche의 장 제목을 골라 순서를 바꾸어 사용한다. 처음의 무제 도입부 뒤에 놓인 여덟 표제는 책 전체의 줄거리를 시간순으로 재현하지 않는다. 제목은 음악의 전개를 위한 이정표이지만, 각 구간은 앞선 재료를 받아 변형하고 다음 구간으로 스며든다. 마지막 악보 표제 *Das Nachtwandlerlied*는 Nietzsche

원전의 제 4부에 있는 *Das Nachtwandler-Lied*와 연결된다. 그 제목이 Strauss가 만든 고유한 이름이라는 설명은 원전과 맞지 않는다.

아홉 구간이 만드는 한 호흡

구분	악보의 표제	음악의 중심
1	무제 도입부	낮은 C와 상승하는 C–G–C 음형, 관현악 전체의 확장
2	*Von den Hinterweltlern*	호른과 오르간에 나타나는 *Credo in unum Deum* 인용
3	*Von der großen Sehnsucht*	B단조 재료와 C의 음향이 맞물리는 탐색
4	*Von den Freuden und Leidenschaften*	C단조에서 출발하는 격렬한 진행
5	*Das Grablied*	앞선 재료의 음영을 깊게 만드는 느린 전개
6	*Von der Wissenschaft*	첼로와 더블베이스가 시작하는 푸가
7	*Der Genesende*	푸가 재료가 대규모 절정으로 확장되는 과정
8	*Das Tanzlied*	악장이 이끄는 독주 바이올린과 빈 왈츠의 흔들림
9	*Das Nachtwandlerlied*	열두 번의 종과 B장조 쪽으로 기우는 종결

도입부의 C–G–C는 이후에도 되돌아온다. *Von den Hinterweltlern*에서는 호른과 오르간이 라틴어 신앙 고백 *Credo in unum Deum*을 인용하며, 곡의 공간은 단순한 자연 묘사를 넘어 인간이 만든 신념의 언어까지 품는다. 이어지는 *Von der großen Sehnsucht*와 *Von den Freuden und Leidenschaften*는 B단조와 C단조의 색채를 오가며, 처음에 던진 재료를 확정된 결론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Das Grablied*는 그 움직임을 한층 어둡고 느린 음향으로 바꾼다.

*Von der Wissenschaft*에서 현악 저음은 서로를 바짝 따라가는 푸가를 시작한다. 이 주제는 C의 음형과 B단조 삼화음 뒤에 남는 반음계 음들을 결합해 열두 음을 모두 거치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처럼 엄격한 구성은 곧 기계적인 대목으로 굳지 않는다. *Der Genesende*에서는 푸가의 재료가 전 관현악의 절정으로 자라나고, 그 에너지는 B단조 화음을 거쳐 *Das Tanzlied*의 왈츠로 방향을 튼다. 악장이 맡는 독주 바이올린은 여기서 관현악의 거대한 질감과 대조되는 개인적인 선을 만든다.

자정의 종과 종결

마지막 *Das Nachtwandlerlied*에서는 큰 종이 열두 번 울린다. 낮은 E음으로 지정된 이 종은 글로켄슈필과 바꿔 쓸 수 있는 장식이 아니라, 시간의 경과를 실제 공명으로 들려주는 별도의 악기다. Houston Symphony는 2018년 이 작품을 위해 새 낮은 E음 종을 사용하면서, 그전에는 관형 종을 쓰거나 다른 악단에서 종을 빌렸다고 기록했다. 관형 종은 다소 다른 음색을 낸다는 그 사례는 이 종의 지정이 악보 밖의 추상적인 효과가

아니라 실제 연주 편성의 문제이기도 함을 보여 준다.

종소리 뒤 음악은 C의 음향을 지나 B장조 코다로 이동한다. 그러나 가장 아래에서는 첼로와 더블베이스의
피치카토 C–G–C가 남고, 위 성부에는 B장조 화음이 놓인다. Boston Symphony Orchestra는 이 관계를 자연의 세계와 인간 정신의 탐구를 대비하는 방식으로 읽는다. 반면 조성 분석에서는 B가 더 우세하다는
견해도 있어, 이 마지막을 두 조성이 완전히 동등한 이조성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 결과 마지막 순간에는 서로 다른 두 음향의 흔적이 겹쳐 들린다.

녹음으로 남은 대관현악
Fritz Reiner가 Chicago Symphony Orchestra를 지휘한 1954년 녹음은 2011년 미국 의회도서관의
National Recording Registry에 선정되었다 . 의회도서관 해설에 따르면, 이 세션에서는 RCA의 두 팀이
모노와 스테레오를 동시에 녹음했다. 모노 음반은 그해에 나왔고, 스테레오 녹음은 1958년 Living Stereo로 발매되었다 .

의회도서관은 이 녹음이 넓은 다이내믹 범위와 관현악의 균형을 당시의 녹음 기술로 포착한 사례라고
설명한다. 도입부의 광대한 금관, Von der Wissenschaft의 푸가에 쌓이는 저음, 왈츠에서 앞으로 나오는 독주 바이올린, 마지막 종과 현악의 잔향은 한 작품 안에 공존한다. 1954년의 녹음은 녹음 매체가 그 대비를 어떻게 담아냈는지도 보여 준다.

주요 자료

Frankfurt 대학교 도서관, 1896년 Jos. Aibl 전악보: 초판 표제와 출판 정보.

Wise Music Classical / C.F. Peters, 작품 정보: 초연, 편성 약호, 소요 시간.

Berliner Philharmoniker, 작품 해설: 무제 도입부와 표제 구간의 관계.

Boston Symphony Orchestra, 작품 해설: 구성, 음형, 종결의 C와 B.

National Arts Centre, 작품 해설: 신앙 고백 인용과 푸가의 음고 구성.

Nietzsche Source, Also sprach Zarathustra IV: Das Nachtwandler-Lied의 원전 표제.

Richard Strauss Werke. Kritische Ausgabe, 권 목록: Op. 30 비평판의 준비 상태.

Houston Symphony, 낮은 E음 종 자료: 실제 공연에서의 종 편성.

Library of Congress, Reiner와 Chicago Symphony Orchestra의 1954년 녹음: 모노 ·스테레오 동시 녹음과 발매 이력.

Revision #1
Created 2026-10-04 10:07:01 UTC by 안준영
Updated 2026-10-04 10:07:01 UTC by 안준영